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4월 11일 토요일 오후 올스턴 브라이언 애비뉴에 위치한 산바다 레스토랑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서명을 시도했으나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

서명 한 장의 무게, 올스턴 거리에서 마주한 선거의 냉혹한 현실

거절과 설득이 마주치는 현장, 서명 한 장 받기가 이리 어려울 줄이야 린다 챔피언 서포지검장 출마 서명지 확보에 뛰어들어 본 하루의 기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서포지검장에 출마한 린다 챔피언의 1천 명 서명지를 모으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 당시 뉴햄프셔에서 풀뿌리 캔버스 활동을 벌인 이후, 선거운

동에 직접 뛰어들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좋은 기억만 남아있었는데도 모른다. 서명 한 장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린다 챔피언 관련 기사를 쓰다가 무작정 메

〈전체 기사 읽기〉

시지를 보내 “도와줄 일이 없는지” 물었다. 린다는 곧바로 올스턴 지역의 서명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무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계산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4월 28일은 1천 명 서명지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었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실제로 서명지를 확보는 선거

초기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고된 관문 가운데 하나다. 린다를 뉴턴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만나 서명지를 받아 들고 올스턴으로 향하는 마음은 무거웠다.

필자 자신을 반추해봐도 확률이 적었다. 거리에서 이런 서명지를 내미는 사람들을 나는 늘 매몰차게 지나쳐 왔다.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돌아보면 나 역시 거리에서 이런 요청에 응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게다가 조건도 까다로웠다. 이름과 주소를 받아야 했다. 보스톤 거주자여야 하고,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민주당 또는 무소속으로 등록된 유권자여야 했다. 함수로 치면 변수가 너무 많았다. 열 사람에게 말을 걸어 한 사람이 응한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다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러다 단 한명의 서명도 못 모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다행히 날씨는 좋았다. 그러나 시작부터 일이 꼬였다. 동행한 14세 아들 ‘건’ 이 제동을 걸었다. 한국가든에서 점심을 먹을 때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서명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돌아온 대답은 “No” 였다.

오늘의 과제가 서명 모으기라는 사실은 몰랐고, 단지 린다 챔피언 선거운동을 취재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서명 모으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생각해 보니 내가 이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결국 ▶▶10면으로 계속

20일 보스톤마라톤 관전포인트...출발 방식 바뀌고 정상급 선수들 총출동

130회 대회, 한국국적 선수 141명 참가, 한국 거주 한국 선수는 116명
 일반 참가자 출발 4개 웨이브에서 6개 웨이브로 확대
 디펜딩 챔피언 대거 복귀...WCVB와 ESPN2 통해 생중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제130회 보스톤마라톤이 오는 4월 20일 패트리어츠데이에 열린다. 올해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는 가운데, 일반 참가자 출발 방식이 기존 4개 웨이브에서 6개 웨이브로 바뀌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

힌다. 올해 전체 참가자는 3만명이며, 매사추세츠 참가자는 4,698명이다. 한국 국적 출전 선수는 총 141명이며 한국 거주 출전자는 116명이다. 매사추세츠 거주 한국 국적 출전자는 체스넛힐에 거주하는 로렌스 김이 유일하다

〈전체 기사 읽기〉

주최 측은 출발선 혼잡을 줄이고 코스 내 흐름을 분산하기 위해 웨이브 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오전 6시 매사추세츠 주방위군의 출발을 시작으로, 남자 휠체어 부문은 오전 9시 6분, 여자 휠체어 부문은 오전 9시 9분, 프로 남자 부문은 오전 9시 37분, 프로 여자 부문은 오전 9시 47분에 각각 출발한다. 일반 참가자들은 오전 10시부터 11시 21분까지 6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발한다. 중계는

WCVB 채널5와 ESPN2에서 볼 수 있고, 스트리밍은 WCVB와 Very Local 앱을 통해 제공된다.

코스는 총 26.2마일이며 홉킨턴 타운센터 메인스트리트에서 시작해 애슬랜드, 프래밍햄, 내틱, 웰슬리를 거쳐 뉴턴 언덕 구간으로 이어진다. 이후 보스톤칼리지를 지나 체스트넛힐애비뉴, 클리블랜드스쿨, 비컨스트리트, 캔모어스퀘어를 통과한 ▶▶6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 5월 17일 40주년 맞아 개최

1984년 브라운대 오픈 마살아트 대회로 출발해 전통 이어와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잇는 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보스톤=보스톤코리아〉장명술 기자 =로드아일랜드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오는 5월 17일 40주년을 맞아 열린다.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태권도 대회가 40주년을 맞는 것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며 미 전역에서도 많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인터넷 검색으로 주요 태권도 대회를 제외하고 전미 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가장 오래됐으며, 오클라호마 한무관의 오클라호마 인비테이셔널 등이 40주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홍스 월드클래스 태권도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984년 브라운

〈전체 기사 읽기〉

운대학교에서 ‘오픈 마살아트 선수권 대회’로 처음 시작됐다. 당시에는 태권도 도장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다양한 무술 종목이 함께하는 대회로 출발했다. 이후 태권도 인구가 많아지면서 로드아일랜드 오픈 태권도 대회로 발전해 왔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전통을 이어오며 올해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도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오프닝 세리머니는 당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이후 점심 식사도 마련된다.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태권도를 통해 세대와 문화를 잇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잡아 왔다. 매 격년마다 보스톤 총영사관 후원 총영사컵 태권도 대회로 치르며 한국문화를 알려왔다. 태권도는 한인 사회를 넘어 지역의 주류 사회에 한국의 전통과 정신을 알리는 자부심의 상징이었고, 자라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절제와 인내, 예의와 자신감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어 왔다.

40년 동안 한 대회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 자체도 지역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는 태권도가 단지 한인들만의 종목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무도 문화로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진다.

대회 장소는 이스트 그리니치 고등학교 체육관(East Greenwich High School Gym, 300 Avenger Dr., East Greenwich, RI 02818)이다. 흥진섭 관장은 “40주년이라는 뜻깊은 대회를 개최하게 돼 감개가 무량하다”며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함께 40주년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전했다.

문의는 전화 401-885-4900 또는 웹사이트 RITKD.COM을 통해 하면 된다.



홍스 월드클래스 태권도센터의 흥진섭 관장과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는 두 아들

아시아 커뮤니티 펀드 2026년 그랜트 신청 접수, 24일 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재단 산하 아시아 커뮤니티 펀드(Asian Community Fund, 이하 ACF)가 매사추세츠주 아시아계(AAPI)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그랜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2020년 출발한 ACF는 매사추세츠주에서 AAPI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특화된 최초이자 유일한 자선 기금이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하며, 더 강력한 옹호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 자격은 매사추세츠주에 기반을 둔 501(c)3 비영리 단체이거나, 501(c)3 자격을 갖춘 재정 대리인을 보유한 단체다. 심사는 단체의 사명과 영향력, ACF 지원 우선순위의 부합 여부, AAPI 커뮤니티의 가시성·협력·역량 강화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산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연간 운영 예산이 50만 달러 미만인 단체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한 매사추세츠주 내에서 소외된 AAPI 민족 및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그리고 ACF

〈전체 기사 읽기〉

또는 보스톤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이전에 지원을 받은 적 없는 단체가 우선권을 갖는다. 재원의 폭넓은 배분을 위해 ACF는 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3년 연속으로 제한한 후 1년간 중단할 수 있다.

보조금은 매사추세츠주 AAPI 커뮤니티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단체 및 프로젝트의 일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지원 규모는 주로 5,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 사이이며, ACF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금액과 기간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 지원 여부는 2026년 6월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다만 매사추세츠주 외부 커뮤니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행사 후원, 모금 캠페인, 건축 비용, 기부금 적립, 의학·학술 연구, 종교 활동, 정치 후보 지원 활동, 특정 개인을 위한 긴급 지원, 장학금 프로그램, 티켓 판매 또는 입장료 관련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tbf.org/acf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대니얼 김(danielle.kim@tbf.org)에게 연락하면 된다.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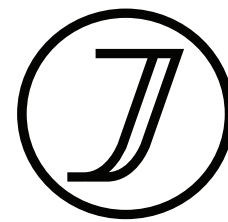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항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콩코드 도서관, 5월 한달간 <한국 가정의 달 행사> 개최

전시·공연 및 워크숍으로 한국 문화 소개
한지공예·인형전시·전통음악·케이팝 댄스 등 프로그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콩코드공립도서관(Concord Free Public Library)이 한국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한국 가정의 달 행사(Korean Family Month Celebrations)'를 5월 한달 동안 개최한다.

이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전시와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시회로 시작된다. 5월 2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 아트 갤러리에서는 한지 공예 작가

<전체 기사 읽기>
이종국의 작품이 전시된다. 충청북도 별랏마을에서 마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작가는 직접 재배한 다펀으로 한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예 작품을 선보여 온 자연주의 작가다. 최근에는 미국 내 전시와 워크숍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같은 기간 도서관 1층 전시 케이스에서는 정재희 작가의 인형 작품이 전시된다. 한국적 정서와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두 전시를 기념하는 오프닝 리

셉션은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5월 9일에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마련된다. 거문고 연주자 허익수와 해금 연주자 그레이스 강이 'String & Wind'를 주제로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날 올스턴의 스타일미댄스 스튜디오(StyleMe Dance Studio)에서는 케이팝 댄스 공연도 진행되어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관객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5월 16일에는 이종국 작가의 한지 공예 워크숍과 이현경 작가의 종이접기 워크숍이 각각 열려 참가자들이 한국 전통 공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가 2015년부터 콩코드 공립도서관 후원회(Friends of the Concord Free Public Library)와 함께 공동 주관해 오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웹사이트와 콩코드공립도서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발레, 2026-27 시즌 이상민 수석무용수로 승급 발표...무용수 9명 승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발레단(Boston Ballet)의 남성 무용수인 이상민씨가 수석 무용수(principal dancer)로 승격됐다.

보스톤 발레단(Boston Ballet)은 2026-27 시즌을 앞두고 이상민씨를 비롯한 9명의 무용수 승급을 발표했다. 솔리스트(soloist)로 활약해온 이상민씨는 2019년 보스톤 발레단에 입단했으며, 이번 승급으로 보스톤 발레단의 최고 직급에 오르게 됐다.

소속 단원으로 활동해온 알렉산드리아 히스(Alexandria Heath), 에마 토폴로바(Emma Topalova), 알렉시스 워코우스키(Alexis Workowski), 스카일러 와이센(Schuyler Wijzen) 등 4명은 세컨드 솔리스트(second soloist)로 승급했다.

<전체 기사 읽기>
또 한 보스톤 발레 II(Boston Ballet II) 소속이었던 나탈리아 카르도나(Natalia Cardona), 소피아 존스(Sophia Jones), 파벨 쿨레프(Pavel Kulev), 알렉산더 모크리시(Alexander Mockrish) 4명은 정단원(Artist of the Company)으로 발탁됐다.

이상민씨는 지난해 2월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남자 주인공 시그프리트 왕 지역을 맡아 뛰어난 안무와 기품있는 연기 그리고 준수한 외모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 공연에서 빅토리아 캐피티노바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이상민씨는 각종 공연의 주연으로 활약하며 수석무용수 승격을 예감해 왔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Boston K-Peace Culture Festival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Saturday May 9, 2026

2-4pm @ Copley Square

*K-POP / Traditional
Performances
& Public Speaking*



[2026 보스턴 졸업식]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은 레스토랑 BEST 5, 예약 서둘러야

보스턴 항구 뷰부터 비컨힐 클래식, 아시안 카드까지 다인원 예약과 분위기를 함께 잡는 졸업식 가족 식사 가이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졸업식 시즌이 다가오면 가족 식사 자리는 행사만큼 중요해진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자리라면 음식 맛뿐 아니라 분위기, 사진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더구나 인근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예약 없이 음식점을 찾는 것은 무모한 모험에 가깝다. 이번 시즌에는 시포트의 항구 전망 레스토랑, 백베이와 비컨힐의 클래식한 파인다이닝, 그리고 양식에 지친 부모님을 위한 아시안 식당까지 미리 고려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아래 식당들은 공식 사이트와 예약 플랫폼 기준으로 프라이빗 다이닝이나 단체 예약 대응이 확인되는 곳들이다.

첫 번째로 권장하는 레스토랑은 시포트의 리걸시푸드하버사이드 (Legal Sea Foods Harborside)다. 이곳은 3개 층, 약 2만 제곱피트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으로 보스턴 항구를 바로 내려다보는 패티오와 180도 하버 뷰 루프탑(Roof top)이 강점이다. 단체나 가족 기념 식사에 맞는 프라이빗 이벤트 공간도 운영하고 있어, “보스톤에 왔다”는 느낌과 시푸드 중심의 무난한 메뉴 구성을 함께 잡고 싶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두 번째는 매스트로스 오션클럽 보스톤 (Mastro’s Ocean Club

〈전체 기사 읽기〉
Boston)이다. 시포트 워터프런트에 자리한 이 식당은 바다 전망을 앞세운 고급 스테이크 및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프라이빗 룸과 세미 프라이빗 공간 구성이 비교적 뚜렷하다. 하버를 내려다보는 Mastro Room은 최대 30명, Liberty Room은 최대 45명, 세미프라이빗 공간은 최대 150명까지 수용 가능해 다인원 졸업 축하 식사에 특히 강하다. “사진이 잘 나오는지 화려한 저녁”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만한 곳이다.

세 번째는 백베이의 비스트로두미디(Bistro du Midi)다. 보스턴 퍼블릭 가든을 마주한 이 프렌치 레스토랑은 2개 층에서 식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식 안내에 따르면 6명부터 200명까지 프라이빗 또는 세미프라이빗 그룹 식사가 가능하다. 시포트보다 차분하고, 부모님 세대가 선호할 만한 단정한 분위기가 강점이다. 따라서 요란한 축하 자리보다는 “격식을 갖춘 저녁”에 더 잘 맞는 카드다.

네 번째는 비컨힐의 무우비컨힐 (Moo Beacon Hill)이다. XV Beacon 옆에 자리한 이 스테이크 하우스는 “모던한 우아함과 전통적인 세련미”를 내세우고 있고, 프라이빗 공간인 Wine Cellar는 기본 좌석 32명, 좌석 확장 시 50명, 리셉션 형식으로는 65명까지 가능하다. 특히 1722년 저택 터 위에 조성



리걸시푸드 하버사이드 레스토랑에서 내려다 보이는 보스턴 하버 전경

된 공간과 고풍스러운 셀러 분위기가 있어, 뉴잉글랜드의 클래식한 무드를 살리고 싶을 때 잘 맞는다. 비컨힐에서의 저녁을 원한다면 이곳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다.

다섯 번째는 양식에 조금 지친 부모님을 위한 아시안 퓨전 카드, 주마보스턴 (Zuma Boston)이다. 백베이 포시즌스 호텔 안에 있는 이곳은 일본식 이자카야 콘셉트의 공유형 메뉴를 내세우며, 호텔 측은 Zuma에 프라이빗 다이닝 룸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통 한식당은 아니지만, 스테이크하우스나 프렌치가 연달아 부담스러울 때 회

, 로바타 등을 중심으로 식사 흐름을 바꿔주기 좋은 선택지다. 격식은 유지하면서도 메뉴 피로도를 낮추는데 유리하다.

정통 한식을 더 우선하고 싶다면 보너스 카드로 케임브리지의 코리아나 (Koreana)도 눈여겨볼 만하다. 완전한 럭셔리 파인다이닝 계열은 아니지만, 가족 단위로 비교적 편하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선택지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전화 예약만 받으며 당일 예약은 받지 않고, 예약 확정도 별도 확인 전화를 거치는 방식이라 졸업식 주간에는 특히 서둘러 움직

이는 편이 낫다. 실전 팁도 있다. Legal Harborside, Mastro’s, Bistro du Midi, Moo Beacon Hill은 OpenTable에서 바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Zuma Boston은 OpenTable과 Resy에서 좌석을 먼저 확인해보는 방식이 편하다. 다만 8명 이상이거나 프라이빗 룸이 꼭 필요하다면 앱 예약만 믿지 말고 식당에 직접 문의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졸업식 식사는 음식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p>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 전 978.494.2043 jullie@bostonpremierrealty.com</p>	 <p>니키 박 617.447.0591 nikkiepark@gmail.com</p>	 <p>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ju@gmail.com</p>	 <p>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ju@gmail.com</p>	 <p>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p>
 <p>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p>	 <p>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p>	 <p>황수진 617.538.6973 sujiwang1@gmail.com</p>	 <p>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p>	 <p>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p>	 <p>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p>
 <p>최진민 617.877.0387 heejin52@bostonpremierrealty.com</p>	 <p>이영순 781.800.3412 bostony@bostonpremierrealty.com</p>	 <p>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p>	 <p>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p>	 <p>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p>	 <p>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p>
 <p>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p>	 <p>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p>	 <p>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p>	 <p>Vivian Yu 617.935.2713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p>	 <p>Xian Dole 413.522.8979 xiang2022@gmail.com</p>	 <p>Lu JIang 240.449.0117 jiangubox@gmail.com</p>
 <p>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p>	 <p>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p>	 <p>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p>	 <p>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p>	 <p>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p>	 <p>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p>
 <p>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p>	 <p>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크 김 871.956.0409 djakekim@bostonpremierrealty.com</p>	 <p>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p>	 <p>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111@hotmail.com</p>	

물류창고직을 대신하는 로봇 등장, 로커스 로보틱스 어레이

월빙턴 기반 로보틱스, 물건 집고 선반 재고 보충까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주 월빙턴에 본사를 둔 물류 로봇 기업 로커스 로보틱스(Locus Robotics)가 창고 작업을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신형 로봇 '어레이(Array)'를 공개해 AI에 이어 로봇마저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머지 않았음을 실감케 했다.

보스톤글로브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 로봇은 창고 선반에서 물건을 직접 꺼내고 재고를 보충하는 작업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천 명의 창고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게 약 450킬로그램, 높이 약 3미터에 달하는 거대 어레이 로봇은 선반에 접근해 상품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꺼낸 뒤, 카메라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장착된 로봇 팔로 원하는 물품을 골라 출고 상자에 담는다. 이 로봇은 최대 6명의 고객 주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 수거

가 완료되면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를 올려놓아 포장 및 배송 단계로 넘긴다. 재고보충 역시 사람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로커스의 리크 폴크(Rick Faulk) 최고경영자는 "어레이는 창고 운영의 '성배(holy grail)', 즉 사실상 자율로봇이 사람의 개입 없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시스템이 창고 내 인력 개입을 90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의류처럼 기공이 있는 제품에도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흡착 그리퍼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크고 무거운 물품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온라인 소매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의 약 75퍼센트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창고에서는 사람이 로봇과 함께 작업하는 반자동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작업자가 선반에서 물품을 꺼내 로봇이 운반하는 방식으로, 로커스는 현재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전체 기사 읽기〉

기업에 1만7천 대의 이런 협업형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어레이는 이 중간 단계를 없애고 전 과정을 로봇 혼자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의 공급망 분석가 압딜 툰자(Abdil Tunca)는 어레이가 '폴리펑크셔널(polyfunctional·다기능)' 창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로봇이 "양파만 써는 요리사"처럼 단일 작업만 수행하는 반면, 다기능 로봇은 물품 선택부터 운반, 재고 보충까지 전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툰자는 "기존 로봇은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지만, 다기능 로봇은 사람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레이가 도입되더라도 포장·배송 분야의 일부 인력은 당장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물품 선별 담당 창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상당한 위협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브루클린의 리플렉스(Reflex), 텍사스 오스틴의 브라이트픽(Brightpick) 등도 유사한 다기능 창고 로봇을 개발 중이어서 업계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로커스는 로봇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월정액 서비스 모델을 운영한다. 고객사는 필요한 대수에 따라 월 사용료를 내며, 로커스가 유지보수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담당하고 연말 성수기 같은 시기에는 추가 로봇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로커스가 현재 세계 최대 창고 로봇 제조업체라고 밝히고 있다.

hsb@bostonkorea.com



4월 비자 불레틴, 취업이민 2·3순위 '현재' 전환...영주권 대기 완화

2023년 5월 이래 3년만에 비자 문호 열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에서 취업이민 일부 부분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현재(current)' 상태로 전환되며 영주권 취득을 기다려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매달 발표되는 비자 불레틴은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과의 이들을 고용한 미국 기업이 가장 주목하는 공식 발표 중 하나다. '현재' 상태란 해당 카테고리에서 더 이상 대기 줄이 없음을 의미하며, 해당자는 즉시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또는 해외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클라크 힐(Clark Hill) 이민법 팀이 불레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4월 불레틴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EB-2)와 3순위(EB-3)의 일

〈전체 기사 읽기〉

카테고리가 '현재'로 전환됐으며, 그 외 다수의 EB-2·EB-3 카테고리 우선일도 최대 1년가량 앞당겨졌다. 특히 2023년 5월 EB-2·EB-3 우선일자 후퇴(retrogression)가 시작된 이후 수년간 대기 상태에 놓여 있던 신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다. 청원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B-2와 EB-3 카테고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사, 엔지니어, 등록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의 스폰서 취업이민을 포괄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수요가 높은 카테고리의 우선일자는 앞으로도 후퇴와 전진을 반복할 수 있다며, 미국 고용주들에게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스폰서십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hsb@bostonkorea.com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턴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부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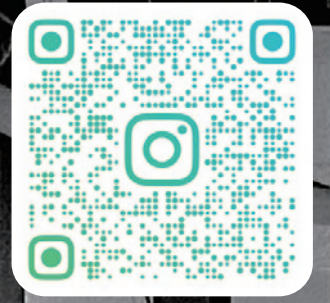
보스톤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과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서명 한 장의 무게, 올스턴 거리에서 마주한 선거의 냉혹한 현실

▶▶1면에 이어서

아들 설득부터 시작해야 했다.

그래도 통과구는 있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인 2세 학생에게 먼저 서명을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내용을 설명하고 간곡히 서명을 부탁하자, 잠시 망설이던 학생은 끝내 서명에 응했다. 첫 서명이었다.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

거리로 나섰다. 바빠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는 '선구안'이 필요했다. 그런데 막상 거리로 나가 보니 스트라이크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거리는 모두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 곳이었다.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걸기가 무섭게 지나쳐 갔다. 곧바로 작전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걷는 사람이 아니라 멈춰 서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건물을 재촉해 올스턴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산바다' 음식점으로 향했다.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보고, 한인 비율도 높을 것이니 성공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예상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한 무리씩 다가갈 말을 걸었다.

하지만 유권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타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유학생과 연구원도 많았다. 단 한 사람에게서도 서명을 받지 못했다.

다시 하버드 예비뉴로 방향을 틀어 대기 줄이 긴 카페 워크엔드 앞을 공략하기로 했다. 한인보다 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편이 유권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다. 네 팀 정도와 접촉했지만 세 팀은 보스턴에 사느냐고 묻자 거주하지 않느냐며 곧바로 등을 돌렸다. 보스턴에 산다는 사람도 서명지의 취지를 설명하자 바로 선을 그었다.

다시 브라이언 예비뉴와 하버드 예비뉴를 오가며 거리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햇살 좋은 오후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향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멈춰 서지 않는 사람에게 접근

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전략을 다시 수정할 시간이었다. 적어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이어야 했다. 식당 안이나 건물 내부처럼 자기 일을 하고는 있지만, 당장 다른 곳으로 이동할 부담은 없는 사람들을 공략해야 했다. 첫 서명이 나온 이유도 결국 그 때문이었다. 식당 안이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말이 달았고, 설명이 가능했다.

감자탕 전문점 한마루를 찾아 들어갔지만 보스턴 거주자는 없었다. 그때 문득 사람들이 꾸준히 드나드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떠오른 곳은 보스톤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161 Harvard Avenue 건물이었다. 살사댄스 교습소가 있고, 네일숍이 있으며, 매니아층을 겨냥한 옷가게도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고,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라는 점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성공적인 선택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건에게서 나타났다.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더니, 어느 정도는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하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듯했다. 그래서 "아빠,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고 조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내가 "그럼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던 그가 "내가 보여줄게요" 라며 나섰다.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스턴에 사세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큰 도움이 됐다. 나는 우리가 린다 챔피언을 서포지검장 선거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1천 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한 뒤, 민주당 또는 무소속 유권자인지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그다음에 서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기까지 답하는 사람들은 실제 서명 확률이 훨씬 높았다.

물론 대부분은 보스턴 거주자가 아니었다.

서명을 받는 나조차 보스턴 거주자가 아니지 않은가.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뉴턴, 서머빌, 메드퍼드, 심지어 뉴햄프셔 거주자도 있었다.

뉴햄프셔 하원의원이라는 한 여성은 딸과 함께 있었다. 자신은 민주당원이지만, 딸은 보스턴에 거주하되 공화당원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서명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원은 대신 조언을 건넸다. 서명을 받으려면 후보 프로필이 담긴 간단한 홍보지(Handout)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을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서명한다는 것은 거의 그 사람을 찍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그러려면 후보 프로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조언은 곧바로 현실이 됐다. 보스턴 거주자이고 민주당 유권자이지만, 린다 챔피언이 어떤 사람인지 묻는 아들이 계속 나왔다. 성향이 어떤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좀 더 검색해 본 뒤 판단하겠다고 며 정중하게 서명을 거절했다. 그 커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상당수가 같은 질문을 던졌고, 잘 모르는 후보에게는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장 인상에 남는 두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대 백인 여성이었다. 서명 의사를 묻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Absolutely" 라고 말하며 바로 서명했다. 너무 시원했다. 그런데 마지막 주소를 적는 칸에 보스턴이 아니라 브루클라인이라고 적는 것이 아닌가. 결국 무효가 되는 서명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선뜻 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중국계 남성 대학생 유권자였다. 보스턴에 사는 무소속이라고 답한 그는 린다 챔피언이 어떤 후보인지 물었다. 나는 현재 서포지검장 선거 구도와, 린다가 현 지검장의 고문 출신이며 케빈 헤이든의 보스턴 경찰 기소 문제를 계기로 출마하게 됐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린다 챔피언이 과거 어떤 중요한 기소를 했고,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

을 끼쳤는지를 물었다.

나는 린다 챔피언이 과거 서포지검 검사로서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내가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시민협회(KACL) 회장으로서 비영리단체 전환,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교류 활성화, 2세대 전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점들을 보면 린다가 서포지검장으로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KACL을 검색했다. 그 사이 나는 린다에게 메시지를 보내 프로필의 필요성을 알렸다. 린다는 즉각 장문의 프로필을 보내왔다. 제목은 "헌병의 딸 린다 챔피언" 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마침내 서명 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분명했다. "린다가 중국계 커뮤니티에도 다리를 놓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좋았다" 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똑똑한 친구네. 아주 분명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런 모습을 아들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스쳤다.

성공보다 실패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서명은 겨우 7개에 머물렀다. 그러나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도 햇살은 여전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옆에 앉은 아들 건이가 말을 건넸다.

"아직도 해가 있네요. 오늘 하루는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프로덕티브한 하루였네요."

아침에는 한국학교 친구와 함께 김구 선생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자리를 옮겨 올스턴 거리에서 서명지를 받는 활동까지 했으니 그에게는 긴 하루였을 수밖에 없었다. 95번 노스가 사고로 막혀 구글은 로컬도로를 안내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2026.04.08 ~ 04.27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2025년 6월 3일 실시한 제 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

신고·등록신청 방법



· 인터넷

ova.nec.go.kr

▶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공관방문 / 순회접수 시 서면 신청

· 우편 / 전자우편(e-mail) 해당 공관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확인하세요

20일 보스턴마라톤 관전포인트...출발 방식 바뀌고 정상급 선수들 총출동

▶▶ 1면에 이어서

뒤, 하이퍼드 스트리트에서 우회전 하고 보일스턴 스트리트로 좌회전 해 카플리스크어 인근 결승선으로 향한다. 대회 상징인 하트브레이크 힐과 웰슬리의 응원 구간도 올해 다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자 엘리트 부문에서는 지난해 우승자 존 코리어가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는 2시간 7분 이내 기록 보유자가 25명이나 출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케냐의 벤슨 키프루토는 출전 선수 중 가장 빠른 개인 최고기록인 2시간 2분 16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상위 10명 가운데 8명도 다시 출전한다. 다만 미국 기록 보유자인 코너 맨츠는 부상으로 불참하게 됐다.

여자 엘리트 부문에서는 지난해 코스 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샤론 로케티가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여자 엘리트 필드에는 18개국 선수가 출전하며, 미국 내 기반 선수 가운데서도 2시간 26분 이내 기록 보유자가 13명에 달해 미국선수층의 두께도 두드러진다. 2024 파리

올림픽 미국 여자 마라톤 대표였던 에밀리 시슨, 피오나 오키프, 다코타 포펜도 포디엄 경쟁에 나선다.

휠체어 부문 역시 관심이 높다. 남자부에서는 스위스의 마르셀 후그가 패트리어츠데이 4연패와 통산 9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여자부에서는 지난해 우승자인 수재나 스카로니가 임신으로 불참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지난해 2위를 차지한 카트린 드브루너와 코스 기록 보유자 마누엘라 셰어 등 스위스 선수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타티야나 맥패든과 영국의 에덴 레인보 코퍼도 주목할 선수들이다.

올해 대회 상금 총액은 엘리트, 휠체어, 장애인 육상 부문을 합쳐 148만4천500달러다. 또 137개국 선수가 참가해 지난해보다 참가국수가 늘었고, 공식 자선 프로그램에는 193개 단체가 선정됐다. 지난해 보스턴마라톤 자선 모금액은 5천만 달러를 넘겼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행사도 있다. 7세에서 14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보일스턴 스트리트 결승선 구



2025년 보스턴 마라톤 본 경기 전 5K에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

간을 직접 달릴 수 있는 ‘우스마일’이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열린다. 또 1976년 이른바 ‘Run for the Hoses’ 우승자로 유명한 잭 폴츠가 올해 대회 그랜드마셜을

맡는다. 출발선은 15일 오전에 페인팅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종료선은 16일 오전 10시에 페인팅 한다. 마라톤 당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보스

턴 시청 플라자에서는 샘아담스가 주최하는 27마일 파티가 개최된다. 입장권은 \$10이다.

hsb@bostonkorea.com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금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ne.org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모기지 금리 다시 급등, 보스턴 봄 주택시장에 찬물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올 봄 반등이 기대됐던 그레이터 보스턴(Greater Boston, 보스턴 대도시권) 주택시장이 모기지 금리의 재상승으로 다시 찬물을 맞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4년간의 시장 경색이 풀릴 조짐이 보였지만,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국제 불안정과 유가 상승 여파로 3월 모기지 금리가 다시 치솟으면서 낙관론이 내려앉았다.

프레디맥(Freddie Mac)의 주간 모기지 금리 조사(Primary Mortgage Market Survey)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은 3월 중순 6.11%까지 내려갔다가 4월 2일 6.46%로 불과 3주 만에 0.35%포인트 급등했다. 가장 최근인 4월 9일에는 6.3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3월 초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보스턴 RE/MAX 부동산센터의 멜빈 비에이라 주니어(Melvin Vieira Jr.) 에이전트는 "올해 진지하게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매수 희망자들이 몇 주 전과 비교해 달라진 금리를 보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통상 봄은 그레이터 보스턴의 주



택 매매 성수기지만, 경제학자들과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올봄 거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역보스턴부동산협회(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2월 이 지역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388건에 그쳤고, 신규 매물도 643건에 불과했다. 두 수치 모두 최근 몇 년간 가장 부진했던 2025년 같은 달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문제의 근본 구조는 2022년 모기지 금리가 처음 오르기 시작한 이후 얼어붙었던 주택시장 상황과 동일하다. 그레이터 보스턴의 집값은 수십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고, 지난 10년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하지만 2021년까지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이 3% 아래로 내려간 역사적 저금리 시대와 겹쳤기에 중산층 가정도 낮은 월 모기지 상환액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 금리가 두 배 이상 뛰었고,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예비 주택 구매자들은 높은 집값과 높은 월 상환액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 추산에 따르면 2021년에 이 지역 입문 수준 주택을 살 수 있었던 약 10만 명이 2025년에는 같은 주택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

금리 상승은 매도자들의 발도 묶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현재 30년 고정금리 평균보다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물 부족이 다시 매수자의 선택지를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한 오픈하우스와 경쟁 입찰이 벌어지고 있어 시장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 이상 시장 변화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매수

올해 세금환급 늘었다...평균 환급액 10% 이상 증가

의회 통과 감세법 영향으로 평균 환급액 3,462달러
원천징수 조정 전이라 올해만 환급액 일시 확대 가능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올해 미국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환급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4월 3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거의 1억 가구의 평균 환급액이 3,462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 3,116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환급액 증가는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의 영향이 크다. 이 법으로 많은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었지만, 법 시행 시점이 연중간이었던 탓에 기업들이 이전 기준에 따라 급여에서 세금을 더 많이 원천징수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환급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세청(IRS)이 4월 3일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같은 시점까지 접수된 세금보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환급 총액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시점 환급 총액은 2,110억 달러였지만 올해는 2,410억 달러를 넘어 약 14% 증가했다. 또 세금보고 처리자 가운데 환급을 받은 비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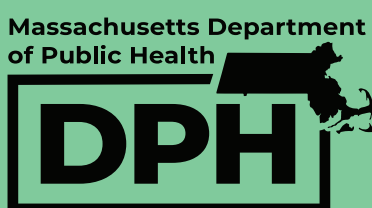
타났다. 이번 감세법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확대와 함께 자녀세금크레딧 상향, 팁 소득 공제, 초과근무 수당 공제, 일부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고령층 추가 공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초과근무 수당 공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신청하면서 전체 평균 환급액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처럼 큰 환급액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는 새 세법이 원천징수 공식에 반영돼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부터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는 대신, 세금보고 시즌 환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정책 전문가 케이시 피트먼은 "환급은 결국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IRS는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마감일에 보고한 납세자들도 환급 대상일 경우 약 3주 안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새론 거주 강지호 학생, 이글 스카우트 올라

37개 메리트배지와 지역사회 봉사로 스카우트 최고 등급 달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새론(Sharon, MA)에 거주하는 한인 강지호 학생(11학년)이 보이스카우트 최고 등급인 이글 스카우트에 올라 지역 사회의 축하를 받았다.

지난 4월 4일 팍스보로 소재 그레이스 채플에서 열린 이글 코트 오브 아너(Eagle Court of Honor) 행사에는 주 상원의원 폴 프리니, 주 하원의원 테드 필립스를 비롯한 새론 셀렉트맨들이 참여해 강지호 학생의 성취를 함께 축하했으며, 그의 프로젝트와 지역사회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강지호 학생의 이글 스카우트 프로젝트는 새론 청소년 야구·소프트볼 협회(SYBSA)를 위한 접수판테이블과 벤치 플랫폼 설치였다. 이 프로젝트는 새론 레크리에이션 디파트먼트와 협력해 데버러샘 프스필드에서 진행됐으며, 실제로 지역 청소년 선수들과 가족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는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었다. 강지호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을 광장에서 컵스카우트 광고를 본 계기로 직접 부모에게 등록을 요청하며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흥미를 느꼈던 그는 캠핑과 하이킹, 각종 야외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스카우트의 여러 과정을 자연스럽게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쌓인 성취도 남달랐다. 이글 스카우트 최소 요건은 21개의 메리트배지이지만 강지호 학생은 37개를 취득했고, 이글 달성 이후에도 추가 배지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팔이 부러져 깃스를 했던 시기에도 좌절하기보다 하이킹 목표를 세웠다. 5마일부터 시작해 20마일까지 총 70마일을 완주했고, 수영·하이킹·사이클링은 물론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관련 배지까지 취득해 현재 YMCA에서 라이프가드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지호 학생의 어머니 김정선 씨는 “지호가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도록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스카우트 활동이야말로 어른들이 제공한 안전한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실수와 협력을 통해 자립심과 리더십을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김정선씨는 말했다.

〈전체 기사 읽기〉

실제로 강지호는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트룹(Troop)의 최고 청소년 리더인 시니어 패트롤 리더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미국 의회상(Congressional Award) 금메달도 수상했다. 악기 연주와 사회봉사도 꾸준히 이어가며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강지호는 후배들에게 “편한 영역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강지호 학생 및 부모와의 일문일답이다.

▶스카우트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나요?

지호: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스카우트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의 저는 부모님께 무언가 활동을 시켜달라고 먼저 조르는 편이 아니었지만, 마을 광장에서 컵스카우트(Cub Scouts) 광고 현수막을 본 순간 곧바로 어머니께 등록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인 부모로서 이글 스카우트까지 조력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하게 해낸 비결이 있는지요?

부모: 지호가 구체적 목표와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고 실행해 나가면 우리는 이를 존중해주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모인 우리의 역할은 지호가 다른 스카우트들과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 있게 그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에서 다른 어른 리더들과 부모들의 협력이 중요한데, 이때 우리 어른들의 관여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앞에서 리드해 나가면 부모가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이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지호군이 이글 스카우트가 되기 위해 모든 과제를 완수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는지요?

부모: 지호는 매주 모임을 통해 보이스카우트 선서를 다른 스카우트들과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갖곤 하였습니다(to help other people at all times; to keep myself physically strong, mentally awake, and morally straight). 그리고 아이의 이글 스카우트 선서식에서 이를 뒷배경으로도 사용하였죠. 이렇게 보이스카우트 선서를 되뇌이면서 스스로 의지를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강지호 학생의 이글스카우트 승급 기념식에 참여한 주 상의원 및 새론 셀렉트맨들

지호: 이글 스카우트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들을 완수해서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메리트 배지는) 사실 오랜 시간동안 여러 활동들이 쌓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즐겼기에 여러 야외활동과 스카우트 모임에 참여하도록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참여하다보니 이글 스카우트의 요구사항들은 자연스럽게 충족되었습니다.

▶스카우트의 어떤 면이 강지호군에게는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지호: 무엇보다 자연을 즐기고 배움을 좋아하는 유사한 기호를 가진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동안 저는 캠핑을 가거나 스포츠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끄는 조직이기에 스카우트는 모든 사람들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되는 일종의 형제애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당시 겪고 있던 일들을 똑같이 경험한 선배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고,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과 나누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저 역시 새로 들어온 대원들에게 답을 해주는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글스카우트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아니라 메리트배지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 관리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지?

부모: 지호는 단순히 이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도전하기 위해 메리트배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본인이 좋아하거나 호기심이 드는 분야의 메리트배지들은 끝까지 해내었습니다. 이글 스카우트 필수요건은 최소 21개의 메리트배지인데 지호는 37개를 땀했습니다. 그 중 2개는 이글이 된 이후에 받았습니다. 현재도 카누 메리트배지를 따기 위해 도전 중에 있는데 작년 여름에 50마일 이상을 노를 저으며 카누를 타야 하는 7박 일정의 하이어드벤처 여행을 다녀오며 시작한 메리트배지입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트랙 경기 중 넘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입니다. 방학 직전 깃스를 하게 되자 지호는 좌절대신 하이킹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5마일부터 시작해 20마일까지 총 70마일을 완주했습니다. 수영, 하이킹, 사이클링 중 하나만 해도 되는데 굳이 셋 다 도전하고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배지까지 모두 따낸 덕분에 지금은 YMCA에서 라이프가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쁜 학교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 자기 주도 동기가 지호의 가장 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지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받은 메리트배지들이 스카우트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여름 서머 캠프를 가면 매년 4-5개의 메리트배지들을 받을 수 있었고 메리트배지 대학(MBU)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씩 스카우트 트립에 참여하면 최소한 21개의 배지는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이킹이나 사이클링

같은 조금 더 어려운 배지들도 있지만, 함께할 마음이 있는 친구를 찾는다면 그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다시 스카우트를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더 잘하고 싶지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지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스카우트 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쌓아온 우정, 그리고 수많은 학습의 기회들은 지금의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잘한다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가끔 발생하는 독특한 기회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다양하고 폭넓은 기술을 배우고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수많은 다른 잠재적 경험들을 놓치게 됩니다.

어린 후배 대원들에게 조언하자면, 자신의 편한 영역(Comfort Zone)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카우트의 목적이니까요.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대원들도 아마 여러분만큼이나 모르는 상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배 대원들은 여러분과 같은 관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과정을 이미 모두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매사추세츠서 최고 수익을 올리는 골프장 순위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주에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비영리 골프장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클라인의 더 컨트리 클럽(The Country Club)이 약 3,000만 달러에 가까운 수익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보스톤 비즈니스저널이 골프장들이 직접 제출한 비영리 세금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더 컨트리 클럽은 2022년 US오픈을 개최한 명문 코스로, 매사추세츠주 모든 비영리 골프장 가운데 2,976만5,786달러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웰슬리 컨트리 클럽으로 2,031만 달러를 넘겼다.

상위 6위 안에는 뉴턴 지역 골프장 3곳이 포함됐다. 브레이 번 컨트리 클럽(3위, 1,714만 달러), 찰스 리버 컨트리 클럽(5위, 1,530만 달러), 우드랜드 골프 클럽(6위, 1,406만 달러)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웨스턴의 파인 브록 컨트리 클럽은 1,622만 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수익 상위 클럽들은 보스톤 서부 부유층 교외 지역, 케이프코드, 마사치루세츠, 맨터킷 등 매사추세츠 유명 지역에 집중돼 있다. 케이프코드와 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에드가타운의 빈야드 골프 클럽이 1,394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으며, 오스터빌의 위아노 클럽과 맨터킷 골프 클럽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골프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매사추세츠 비영리 골프장 77곳 중 19곳은 최근 회계연도(대부분 2024년 기준)에 전년 대비 수익이

매사추세츠 비영리 골프장 연간 수익 순위

출처: IRS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

순위	클럽명	도시	연간 수익
1	더 컨트리 클럽	브루클라인	\$29,765,786
2	웰슬리 컨트리 클럽	웰슬리	\$20,313,259
3	브레이 번 컨트리 클럽	웨스턴 뉴턴	\$17,149,774
4	파인 브록 컨트리 클럽	웨스턴	\$16,227,123
5	찰스 리버 컨트리 클럽	뉴턴 센터	\$15,308,420
6	우드랜드 골프 클럽	오번데일	\$14,069,180
7	빈야드 골프 클럽	에드가타운	\$13,944,156
8	나소텍 컨트리 클럽	콩코드	\$13,419,226
9	데담 컨트리 앤드 풀로 클럽	데담	\$13,231,809
10	더 웨스턴 골프 클럽	웨스턴	\$12,804,159
11	위아노 클럽	오스터빌	\$11,577,309
12	벨몬트 컨트리 클럽	벨몬트	\$11,521,476
13	이스트워드 호 컨트리 클럽	채담	\$11,330,489
14	맨터킷 골프 클럽	시어스콘셋	\$10,365,902
15	베스퍼 컨트리 클럽	팅스버러	\$10,278,157
16	엑스키 카운티 클럽	맨체스터	\$9,995,874
17	윈체스터 컨트리 클럽	윈체스터 바이 더 씨	\$9,913,720
18	더 오클리 컨트리 클럽	위터타운	\$9,619,839
19	마이오피아 헌트 클럽	해밀턴	\$9,528,277
20	윌레스턴 골프 클럽	윌턴	\$9,431,6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컨트리 클럽은 매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 전체에서 1위일 뿐 아니라, 뉴욕주 라이의 웨스체스터 컨트리 클럽에 이어 북동부 전체에서 2위에 해당하며, 전국 순위로는 27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상위권은 플로리다 골프장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상위 25개 비영리 골프장 중 8곳이 플로리다에 위치한다. 1위는 보카라톤의 보카 웨스트 컨트리 클럽으로 8,400만 달러의 수익을 신고했다.

다만 수익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골프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은 회원 수, 회비 수준, 식음료 및 행사 등 부대시설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모는 작아도 코스 품질이나 역사적 전통 면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골프장도 얼마든지 있다.

비영리 골프장은 세금 신고서를 통해 수익을 공개해야 하지만, 영리 골프장은 이러한 공시 의무가 없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화이트 마운틴 곰출몰 잦아... 방문객들에 새로운 규정 발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와 메인주에 걸쳐 있는 화이트마운틴에서 곰 출몰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5월 1일부터 새로운 음식물 보관 규정이 시행된다.

미국 산림청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페미게와셋(Femigewasset) 야생 보호구역에서 1박 이상 야영하는 방문객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비누·치약 등 냄새가 나는 물품을 반드시 국제회색곰위원회(International Grizzly Bear Committee)가 인증한 원통형 방금 캐니스터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허용됐던 다른 음식물 보관 방법들은 캐니스터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이번에 전면 금지된다. 다만 서틴폴스(Thirtyn Falls) 텐트 사이트에 설치된 방금 보관함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또한 링컨우드 트레일헤드, 페미게와셋 레인저 스테이션, 사코 레인저 스테이션, 앤드로스코진(Androskogin) 레

〈전체 기사 읽기〉

저 스테이션 등 뉴햄프셔 내 여러 거점에서 캐니스터 무료 대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지역 내 곰 출몰 사고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 원인 대부분이 부적절한 음식물 보관에 있다.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곰들이 인간을 먹이와 연관 짓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더 잦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2024년에 이미 곰 활동 증가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먹이에 익숙해진 곰들이 야영객을 따라오거나 음식을 구걸하고, 식량을 찾아 텐트와 배낭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경고했다. 2025년에는 국유림 내 곰 사고 거의 대부분이 페미게와셋 레인저 구역에서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페미 야생 보호구역 내에서 집중됐다. 특히 프랭코니아 브록 텐트 사이트는 먹이에 익숙해진 곰의 행동이 심각해지면 서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영혼의 심터
2세, 3세들을 위한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21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현실을 외면한 '긍정'은 자기 위로일 뿐이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 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나이까” (시 22:1)

우리는 흔히 “긍정적으로 살라” 는 말을 많이 듣는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믿으면 된다 등.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을 외면한 긍정이다. 겉으로는 믿음 같지만, 실상은 두려움을 감추는 자기 위로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일시적인 자기 위로’ 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긍정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현실을 직면하는 믿음은 삶을 바꾼다. 현실을 외면하는 긍정의 위험을 나눠본다. “문제 없어, 다 괜찮아”,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어”, “생각만 바꾸면 돼” 등.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문제를 인정

하지 않으면, 변화도 시작되지 않는다. 마치 병이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말은 긍정적이지만, 몸은 점점 망가진다. 이것이 바로 현실 회피형 긍정의 위험이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묵상 하면서 성경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경은 결코 ‘무조건 긍정하라’ 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가르친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 다윗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었다. 진정한 믿음은 “괜찮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사람이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프기 싫어서,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서,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이다. 그

래서 우리는 ‘긍정’ 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덮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덮는다고 없 어지지 않는다. 문제와 직면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현실을 외면한 긍정은 위로일 뿐 이지만, 현실을 직면한 믿음은 변화의 시작 이다.’ 하나님은 ‘괜찮은 척하는 사람’ 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아오는 사람’ 을 사용 하신다.

건강한 긍정과 왜곡된 긍정에 대해 나누어 본다. 건강한 긍정(믿음 기반)은 현실을 정확히 인정한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한다. 결과를 보면 그 문제를 통해 성장하고 삶의 변화를 맞게 된다. 그러나 왜곡된 긍정(현실 회피형)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감정을 억누른다. 책임 행동이 없다. 결국 변화 없는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자기 위로’ 로 남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하라” (요 16:33)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환난이 없다’ 고 말씀하 지 않으셨다. ‘환난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하신다. 믿음의 핵심은 “현실 직면 + 하나님 신뢰 + 순종” 을 말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삶은 변화된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현실’ 은 무엇인가. 관계의 문제,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마음의 고통 그 외에도 수많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괜찮은 척 하지 말라고 말이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의 것들을 거저없이 정직하게 나아오는 사람을 오늘도 반기며 찾으신다. 할렐루야!!

4월 19일 - 4월 2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쥐띠 자세히 살펴보도록</p> <p>● 운수: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성공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 금전: 중요한 것이나 재물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곤경에 빠져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21, 24일 길일. 20, 2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소띠 거두어들일 수 있는</p> <p>● 운수: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 금전: 예전에 베풀었던 것을 거두어들일 때가 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는 운이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 애정: 진정한 인연은 처음 본 순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가슴으로 느끼는 상대를 만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5일 길일. 20,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범띠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p> <p>● 운수: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오르지 못할 나무라 단정 짓지 마세요. ● 금전: 바라는 일이 쉽게 성사되지 않고 지연될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 애정: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3, 24일 길일. 19, 2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토끼띠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p> <p>● 운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아쉬운 대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감만 믿고 따라 가면 안 됩니다. ● 애정: 절실할 때에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용띠 이런저런 유혹이</p> <p>● 운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간섭의 강도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친 간섭은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 금전: 이런저런 유혹이 들어오니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애정: 후회할만한 일을 만들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0, 22일 길일. 19, 21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뱀띠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p> <p>● 운수: 인생에 다시없을 기회라고 여길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가까이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금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옵니다.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가족 간이나 부부간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웃음꽃도 피우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말띠 멋진 사랑이 다가오고</p> <p>● 운수: 나를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든든한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좋은 힌트를 발견할 것입니다. ● 금전: 실속이나 이득이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일이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 애정: 멋진 사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짝을 만나게 되는 시기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양띠 희망이 보이는 때로</p> <p>● 운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웃게 됩니다. 소소한 일이나 큰일이든 좋은 소식이 들리겠습니다. ● 금전: 희망이 보이면서 수입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합니다. ● 애정: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원숭이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p> <p>● 운수: 정리하지나 뒤따라오는 일이 걱정되고 계속해서 가자니 자꾸 신경 쓰이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 금전: 자중수를 두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과감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한 번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닭띠 판단을 잘해야</p> <p>● 운수: 과로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하루 안에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다음 날에 해도 되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쪽같은 시간과 돈을 허비할 수 있으니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 애정: 갑자기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정작 화풀이는 엉뚱한 사람에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05, 93, 81, 69, 57, 45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개띠 다시 찾을 수 있는</p> <p>● 운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희망하는 것이 있으면 이번에는 용기를 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나갔던 돈이나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돈도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망설이던 마음을 잡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더는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다가가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돼지띠 때로는 느슨하게 해주는</p> <p>● 운수: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에는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걷는 첫걸음이 많은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 금전: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처럼 과거에 베풀거나 쌓았던 덕으로 이득이 생깁니다. ● 애정: 줄을 너무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물론이고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 때로는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3일 길일. 22, 25일 주의.</p>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6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5, 2026 (Saturday) 6 PM

Chelmsford-Lowell Elks Lodge

300 Littleton Road, Chelmsford, MA 01824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봄철 심해지는 '꽃가루 알레르기 결막염' 생활습관 관리로 예방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봄철에 심해지는 꽃가루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겸 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꽃이 피는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 결막염' 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가 증가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눈 점막을 자극하면서 가려움, 충혈, 눈물 흘림 등의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겸 동주 원장은 “봄철에는 꽃가루와 황사, 미세먼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눈 표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다” 며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할 경우 만성 결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히 눈이 가렵다고 자주 비비는 행동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눈을 비비면 결막에 자극이 가해져 염증이 심해지고, 각막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꽃가루 알레르기 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선글라스 착용 ▲외출 후 손과 얼굴, 눈 주위 세척 ▲인공눈물로 눈 표면 세정 ▲실내 공기 청정 유지 등의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거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봄철에는 콘택트렌즈 사용을 줄이고 안경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눈의 심한 가려움, 충혈, 눈부심, 시야 흐림 등이 지속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염 원장은 “알레르기 결막염은 단순히 참거나 방치할 경우 만성화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항히스타민 점안제나 항염증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며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원인 진단과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강남스마일안과는 계절성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맞춤형 진료를 통해 증상 완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염 원장은 “봄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눈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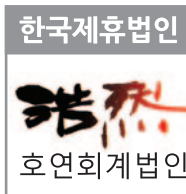
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덧붙였다.

“봄철 심해지는 '꽃가루 알레르기 결막염' 생활습관 관리로 예방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가정의달 마음에 **정** 있어요

가정의달 행사

4월 17일 ~ 5월 17일

‘무료 배송 가능’ 
*\$300 이상 내방 구매고객 한정



JUNG KWAN JANG

에브리타임 증정

- \$2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10포 증정
- \$3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20포 증정
- \$4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30포 증정

천녹류·달임액류 할인

10% 추가 할인
멤버스 ONLY
중복 적용 가능

*\$100 이상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제공
*조기 소진 시 혜택 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41) 내 아이는 150억 자산가

미국에서는 매년 4월을 '재정에 관심을 두는 달'로 정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인 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에 모든 정성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평생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돈의 원리', 즉 재정 교육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26년 현재, 미국 내 39개 주가 고등학교 졸업 필수 과목으로 경제학 대신 '실용 재정(Personal Finance)'을 선택하고 있다. 복잡한 경제 이론보다 당장 사회에 나가 맞닥뜨릴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이자, 은퇴 투자 같은 실질적인 교육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대학 날 종목이나 기가막힌 투자 시점을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재정 교육의 기본은 '꾸준한 저축'이다. 100달러를 가진 사람이 100달러를 더 저축하면 그것만으로 수익률 100%다. 부를 쌓는 비결은 화려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얼마를 벌

든 그중 일부를 꾸준히 떼어놓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투자를 할 때는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투자자가 자신이 내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금융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경비가 높은 상품일수록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기준 개인연금(IRA) 투자 한도는 연간 7,500달러(50세 미만)이다. 만약 이 금액을 매년 꾸준히 투자하여 연평균 10.0%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해 보자. 30년 후 이 계좌는 복리의 마법을 통해 무려 '약 136만 달러(\$1,357,000)' 라는 거금으로 불어난다. 재정 교육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에 있다.

미국이나 특히 한국의 교육제도는 여전히 '국영수' 점수를 올리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일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도, 정작 본인의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려 나갈지 모르는 '금융 문맹'

이 수두룩하다. 미분 적분은 잘 풀어도 복리의 마법을 활용할 줄 모르고, 영어 단어는 수만 개를 외워도 신용카드 리볼빙의 무서운 이자율은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의 실제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매달 평균 100만 원(약 \$750)을 과외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자녀 한 명당 20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하지만, 평균적인 100만 원만 따져봐도 결과는 놀랍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이 돈을 인덱스 펀드(연평균 10% 수익률)에 복리로 투자했다면 아이가 대학에 갈 때 '약 2억 7,000만 원(\$200,000)' 이 모인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다음이다. 대학 입학 후 추가 투자 없이 이 돈을 아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42년 동안 그대로 두기만 해도, 복리의 마법은 이 자산을 '약 150억 원(\$11 Million 이상)' 이라는 거금으로 불려 놓는다. 만약 교육열이 높아 매달 200만 원을 쏟아부었다면, 그 가치는 300억 원에 달한

다. 국영수 문제 하나 더 맞히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사실은 자녀의 완벽한 은퇴 자산과 수백억 원의 자산가로 살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주택 융자금을 빨리 갚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돈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힘은 결국 재정 상식에서 나온다. 모든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며, 누군가 '원금과 수익을 100% 보장'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숨겨진 비용이 엄청나게 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하루하루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기본적인 재정 상식은 반드시 익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국영수 문제 하나 더 맞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 자산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기준'과 '지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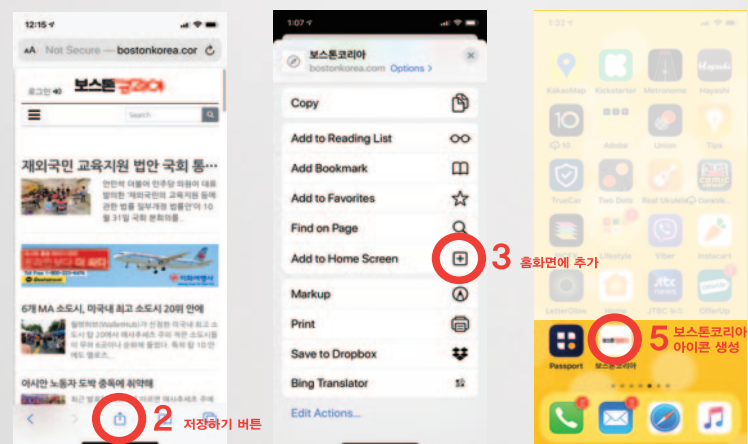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The Place to Create Memories!



MAIN STAGE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징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윙 등 음식 서비스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집을 지금 내 놓아야 하는 이유

2026년 봄 메사추세츠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방향 전환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흐름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은 주택 매도와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 아니면 여름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까?” 라는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현재 시장 구조를 이해하면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보스턴 시장을 보면 거래 활동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가격은 급등하지 않고 있어서, 셀러의 가장 큰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거래량 증가가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거래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

격 경쟁력이 있거나 상태가 좋은 매물은 여전히 빠르게 팔리고 있지만, 가격이 높거나 관리비 부담이 큰 콘도, 투자 목적 매물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판매 기간은 길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 강한 수요 폭 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높은 금리 부담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잘 준비된 매물만 빠르게 거래되고, 그렇지 않은 매물은 장기 리스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거래 패턴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 유지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클로징 비용 크레딧 요청과 오피 가격 협상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점차 약간 바이어 마켓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집을 내놓으면 무조건 팔리는 시장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준비된 매물만 결과를 만드는 시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여름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즌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조금 다른 구



림이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에는 여전히 좋은 매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은 집주인이 낮은 기준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집을 내놓는다면 시장에서 눈에 띄는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잠재 바이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거래는 살아나고 있지만 가격은 급등하지 않는 지금의 시장은 셀러에게 오히려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 일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셀러들에게 이렇게 조언 합니다. “너무 높은 기대 가격으로 기다리는 전략보

다는 시장과 호흡을 맞추는 전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 설정, 주택 상태 정비, 마케팅 전략, 협상 유연성 등 모든 요소를 전략적으로 잘 준비한다면 현재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조건의 거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경제가 불확실한 현실에서는, 여름까지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는 현재 시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얼마나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2026년 이만생활을 담당하게 다름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메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만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인류연재] 트와이스와 최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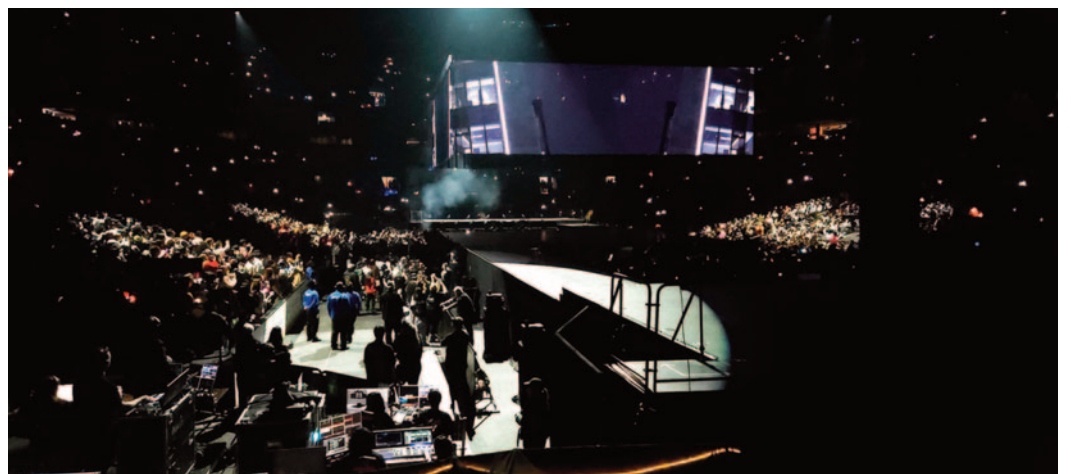
트와이스 콘서트에 다녀왔다. 열 살이들은 한동안 축구장 가는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사위하는 중에 트와이스 노래를 즐기치게 들어왔다. 그러니 남편이 작년에 트와이스 보스턴 공연 소식을 듣자마자 티켓을 사들여 애들한테 생색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음악 취향이 변해버린 소년은 이제 케이팝 자체를 아예 듣지 않는다. 어쩌면 이번 트와이스 콘서트는 우리에게 마지막 한국 가요 축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트와이스 멤버들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제대로 보일 듯 말듯한 거리의 좌석에 앉았다. 공연 내내 눈부신 무대 조명보다 조도 높은 광적인 기운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들떴다. 온갖 굿즈로 무장한 팬들이 우리 주변 자리에서 일어나 공연자 못지않게 목소리 높여 같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무대 위 트와이스를 거울삼아 그 인무를 따라 춤을 추기도 하고

. 이것이야말로 히트송이 여럿인 걸그룹 콘서트 관람의 묘미였다. 음악에 맞춰 공연자가 다양한 난이도의 안무를 선보이는 가운데 관객들이 도저히 몸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서는 못 배길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말이다.

이토록 다채로운 얼굴과 연령의 비한국인들이 한국말로 된 노래를 목청껏 따라 부르는 광경은 여전히, 아니 영원히 내게 신기할 것이다. 이 열기 속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트와이스가 직업적으로 철저히 가꾸어왔을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반했다. 가늘고 마른 몸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고강도 안무와 의상에 넋을 놓았다. 공연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무대 위 숨 찬 예술가가 운동선수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준비한 모든 공연을 마친 트와이스 멤버들은 서로 돌아가며 순서대로 무대 모서리에 섰다. 공연장 멀리까지 최대한 팔을 뻗어 관객들에게 애교 섞인 작별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 모인 팬들은 이런 찰나의 친밀함에 비명과도 같은 환호와 박수로 반응했다. 그 순간 공연자와 관객 사이에서 서로 오히려 사랑받고 싶은 마음뿐인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러나 그 감격의 한복판에 섞여 서 있어도 한평생 변함없을 나의 최애, 우리 딸과 아들에게 내 눈길은 가고 마는 걸

아이들 옆모습을 훑쳐보았다. 그와 동시에 내 안에 두서없는 말

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화려한 무대 위에 올려놓고 전 세계를 우리 애들 팬덤으로 조직하고 싶어’. ‘애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애들이 원하지 않는 것마저 모두 갖다 바치고 싶어’. 콘서트의 여운으로 나의 모성은 ‘거절을 거절하는’ * 광기 어린 관심과 다름 없어졌다.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에게 예정된 애들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우리 장례식이 트와이스 공연처럼 무탈하게 흥행하길

바라보았다. 이윽고 텅 빈 무대를 마주하자 내 마음속 독백이 찾아온다. 그제야 눈에 띄는 콘서트 스태프들. 무대 위 공연자 한 사람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잠시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아이들 기억에 무대에 선 주인공만 남겨지지 않게 ‘저기 좀 봐’ 크게 외친 후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트와이스 Yes or Yes 가사 중에서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2026 CIVIC ENGAGEMENT & LEADERSHIP SUMMER SCHOLARSHIP

Open to 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of Korean Heritage

Empowering Korean-American students
through civic eng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mentorship



List of open statewide internships ✓

Mentorships ✓

Networking & engagement opportunities ✓

APPLY NOW



APPLICATION DEADLINE
APRIL 24, 2026



SCAN HERE

2025 Scholars

SUPPORT KACL-NE BY
FOLLOWING US ON
ALL PLATFORMS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

